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 대하여*

박 선 우

Abstract

Park, Sunwoo. 2006. 8. On the Syllabification of Prefixed Words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32, 91-117. In this paper I indicate that opacity and cyclicity occurred in the syllabification of Korean prefixed words. I discuss that this cyclicity could be analyzed into the Paradigm Uniformity Effect. To analyze the cyclicity of Korean syllabification, I introduce two Output-Output Faithfulness constraints based on Paradigm Uniformity(Kenstowicz 1996, Steriade 1996). The first constraint is Base Identity for the syllabification of compound words. The second one is Uniform Exponence for the syllabification of prefixed words. I suggested the constraint hierarchy, 'Markedness ≫ Paradigm Uniformity ≫ Input-Output Faithfulness', which makes paradigm uniformity effects visible. In addition, depending on morphological properties of Korean prefix, I pointed that the prefix in Korean should be considered not non-lexical category as the suffix but lexical category as the base of compound word. These lexical properties provide the basis of paradigm uniformity effects about the syllabification of prefixed words in Korean.

주제어: 음절화(syllabification), 접두사(prefix), 접두파생어(prefixed word), 패러다임 통일성(paradigm uniformity), 출력부-출력부 충실성(output-output faithfulness)

* 이 논문은 2005년도 BK21 고려대학교 한국학 교육·연구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05년 한국언어학회 여름 학술발표대회'(2005.7.27,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정토론을 맡아 주셨던 이봉원 선생님과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논평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1. 머리말

한국어에서 접두파생어의 음절화는 합성어의 음절화와 매우 유사하다. ‘접두사+어근’과 ‘어근+어근’이라는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접두파생어와 합성어가 동일한 음절화를 겪는 원인은 접두사와 어근에 관련된 공통적 특성과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 나타나는 순환성과 불투명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패러다임 통일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합성어와 접두사의 음절화를 공통적 제약위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 대한 분석은 접두사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한편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and Smolensky, 1993)에서 논의되어온 불투명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Kenstowicz(1996, 1997)에서 제안된 출력부-출력부 충실성(output-output faithfulness) 제약인 ‘일관성 지표’(Uniform Exponence)를 바탕으로 접두파생어의 음절화를 설명하되, 일반적으로 비어휘적 범주로 처리되고 있는 접두사를 대상으로 ‘일관성 지표’와 같은 패러다임 통일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접두파생어의 음절화 양상

규칙기반 분석에서 한국어 합성어와 접두파생어의 음절화는 어휘부의 층위나 운율적 영역에 따라 순환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음절화와 관련된 일련의 음운현상들인 ‘음절말 불파음화, 자음군 단순화, 연음’ 등은 도출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되었다. ‘어휘 음운론’(Lexical Phonology)의 모델을 따른다면 음절화는 어휘부와 후어휘부에서 순환적으로 적용되며(Ahn, 1985), ‘운율

음운론'(Prosodic Phonology)에서도 핵음절화(core syllabification)와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가 차례로 적용되는 순환적 도출과정을 설정하였다(강옥미, 1994).

형태적 과정에 따라 간단히 정리한 한국어 음절화의 양상은 아래와 같다.

- (1) 가. 합성 : /옷/+안/ → 온+안 → [오단]
 나. 접두파생 : /덜-/+옷/ → 덜+온 → [더덜]
 다. 접미파생 : /높-/+이/ → [노피]
 라. 곡용 : /옷/+/-은/, /옷/+/-을/ → [오슨], [오슬]
 마. 활용 : /높-/+/-았-/+/-다/ → [노파따]

(1가-나)에서는 핵음절화에 의해 음절말 불파음화가 일어난 다음 첫음절의 말이 후행 음절의 초성 위치로 연음되면서 재음절화가 일어난다. 반면 (1다-마)에서 볼 수 있듯이 곡용과 활용, 접미파생에서 음절화는 오직 한 번만 일어난다. (1나)에서 '접두사+어근'으로 구성된 접두파생어의 음절화는 합성어의 음절화와 차이가 없다.

- (2) 갓-옷 [가돋] 갓-바치 [갓빠치]
 덜-옷 [더덜] 덜-버선 [덜빠선]
 옷-어른 [우더른] 옷-거름 [운꺼름]

‘갓-, 덜-, 옷-’과 같은 접두사들은 모음이 후행하거나 자음이 후행하거나 항상 단일한 어형([갓-], [덜-], [운-])으로 실현된다. 표기상 음절말 위치에 ‘ㅈ’과 ‘ㅅ’을 갖는 이들 접두사들은 단독형으로 실현되거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표기만으로 입력형이 /갓-/, /덜-/, /옷-/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잠정적으로 접두사가 입력형과 상관없이 핵음절화의 영역을 형성하고 접두사의 말음들이 불파음화를 겪는다고 가정해 보자.¹⁾

규칙기반 분석에서 접두파생어와 합성어의 음절화는 ‘순환성’과 ‘불투명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규칙의 순차적인 적용을 가정한다면 ‘/덧-/+/옷/’은 중간 도출형 ‘덧+온’을 거쳐 [더돋]으로 실현되는데, 재음절화로 말미암아 /덧/의 음절말 불파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제거됨으로써 불투명성(opacity)이 유발된다.²⁾

(3) 가. 정상적 규칙순 (과대적용)

/옷-/+/안/	/덧-/+/옷/	
온+안	덧+온	핵음절화(음절말 불파음화)
오단	더돋	재음절화(연음)
[오단]	[더돋]	

나. 규칙의 순서가 바뀔 때 (역출혈)

/옷-/+/안/	/덧-/+/옷/	
오산	더솏	재음절화(연음)
_____	더솏	핵음절화(음절말 불파음화)
*[오산]	*[더솏]	

(3가)와 같은 정상적 규칙의 순서를 (3나)와 같이 바꿀 경우 두 번째 규칙인 음절말 불파음화는 아예 적용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3)에 적용된 규칙들은 역출혈(counterbleeding) 관계를 형성한다. 연음에 의해 음절말 불파음화의 환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근 /옷/과 접두사 /덧-/은 불파음화를 겪으므로 표면형 [오단]과 [더돋]은 ‘과대적용’의 불투명성을 갖는다.

1) 접두사의 입력형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하겠다.

2) 불투명성에 대한 Kiparsky(1971)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B/X__Y’라는 규칙은 다음과 같은 표면형이 있는 경우에 불투명하다.

(i) A가 X__Y라는 환경에 있을 때
(ii) B가 X__Y 이외의 환경에 있을 때

이 반대의 경우는 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i)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환경에서 적용되지 않는 ‘과소적용’ 현상이며 (ii)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적용된 ‘과도적용’ 현상이다.

도출과정 없이 2단계의 총위(입력부-출력부)만을 인정하는 제약기반적 분석에서 순환적 음절화는 이론의 기본적 전제와 배치된다. 최적성이론에서는 ‘입력형(/옷+/안/, /덧-/+/옷/)-출력형([오단], [더돋])’의 두 총위만을 가정하고 제약위계(constraint hierarchy)의 평가에 의해 도출과정 없이 출력형이 선택되므로 중간도출형(온+안, 덧+온)을 설정할 수 없다. 덧붙여 알다시피 최적성이론에서 제안된 일반적인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의 위계로는 ‘불투명성’을 설명하기 힘들다.

출력부의 유표성과 입력부-출력부 충실성 제약으로 ‘옷안’의 음절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음절말 자음을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인 ‘음절말 조건’(Coda Condition)과 충실성 제약인 ‘입출력부 동일성’(Identity Input-Output)의 상호작용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5)와 같은 두 가지 제약위계를 고려할 수 있다.³⁾

- (4) 가. 음절말 조건 : 평폐쇄음과 비음, 설측음만이 음절말에 올 수 있다.
 나. 입출력부 동일성 : 입력형의 분절음에 대응되는 출력형의 분절음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 (5) 가. 유표성 ≫ 충실성⁴⁾

/옷+/안/	음절말 조건	입출력부 동일성
㉠ a. 오산		
㉡ b. 오단		*!

- 나. 충실성 ≫ 유표성

/옷+/안/	입출력부 동일성	음절말 조건
㉠ a. 오산		
㉡ b. 오단	*!	

3) 최적성이론의 배경과 제약위계에 의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Kager (1999), McCarthy(2002), 안상철(2003)과 전상범(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4) [ot.an]과 같은 후보형까지 고려한다면 ‘음절두음 제약’(ONSET)이 필요하겠지만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후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은 실제의 적형을, ‘㉡’는 잘못 선택된 적형을 의미한다.

(5)의 도표에 의하면 충실성 제약과 유표성 제약이 어떠한 제약위계를 갖더라도 합성어 ‘옷안’의 적형인 [오단] 대신 비적형 *[오산]이 선택된다. [오산]과 [오단]은 동일한 유표성을 가진 후보이므로 [오단]은 입력형에 충실한 [오산]보다 결코 우월한 후보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제약기반 이론의 해결방안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패러다임 통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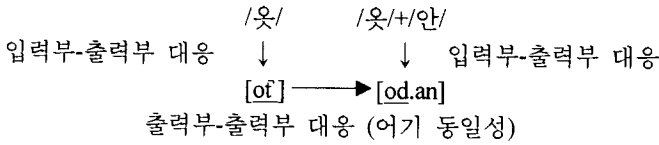
최근 최적성이론에서는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제안되었다.⁵⁾ 출력부-출력부 충실성(output-output faithfulness)에 바탕을 둔 ‘패러다임 통일성’(paradigm uniformity)은 이러한 제안들 가운데 하나이다. 패러다임 통일성 제약을 제약위계에 도입함으로써 한국어의 합성어의 음절화에서 관찰되는 ‘순환성’과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박선우, 2004).

예를 들어 명사 ‘옷’의 출력형들을 패러다임 통일성에 의해 분석한다면 ‘옷’[온], ‘옷이’[오시], ‘옷안’[오단] 등에서 출력형 [온], [오스-], [오느-]은 /옷/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이들 가운데 단독형 [온]은 출력형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비교하는 기준인 어기(base)의 역할을 맡는다. 패러다임 통일성 제약들 가운데 하나인 ‘어기 동일성’(Base Identity)은 패러다임의 다른 구성원들과 단독형 어기 ‘옷’[온]의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정의된다.

5) 감응이론(Sympathy Theory, McCarthy, 1998), 도출형 최적성이론(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Rubach, 2000), 제약의 국부적 결합(Local Conjunction, Kirchner 1996), 출력부-출력부 대응(Output-Output correspondence, Steriade, 1996), 비교유표성(Comparative Markedness, McCarthy, 2002) 등이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Kager(1999:372-400), 안상철(2003) 5-6장, 전상범(2004:858-81)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6) 옷 [온] ‘온’ <단독형>
 옷-안 [오단] ‘온-안’ <합성어>
 옷-이 [오시] ‘옷-이’ <곡용형>

- (7) ‘옷’과 ‘옷안’의 출력부-출력부 대응



- (8) 여기 동일성(Base Identity, Kenstowicz, 1996:370)

입력형이 [XY]로 구성되어 있다면, 출력형은 [X] 및 [Y]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X]와 [Y]가 단독형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여기 동일성’은 단어들 사이의 형태적 관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휘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Kenstowicz, 1996). 규칙에 의한 도출과정에서는 재음절화에 의해 음절말 불파음화의 환경이 사라지지만, 여기 동일성은 /옷/의 음절말 /ㅅ/이 단독형 어기 [온]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ㄷ]으로 바뀌는 동기를 제공한다.

- (9) 유표성 ≫ 패러다임 통일성 ≫ 충실성

/옷-/안/ 어기 : [온]	음절말 조건	여기 동일성	입출력부 동일성
가. 오산		*!(온-옷)	
ㄷ 나. 오단		√(온-온)	*

(9)에서 첫째 후보 [오산]은 음절말 조건과 입출력부 동일성을 준수하지만, [ㅅ]이 어기 [온]의 [ㄷ]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기 동일성을 위반한다. 반면 최적형으로 선택된 [오단]은 입출력부 동일성을 위반하

지만 상위의 제약인 여기 동일성을 준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표성과 충실성만으로 구성된 제약위계에 패러다임 통일성 제약을 추가함으로써 순환적인 도출과정 없이 합성어의 음절화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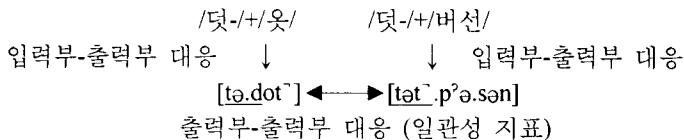
패러다임 통일성은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단독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단독형 어기를 기반으로 하는 여기 동일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기가 존재하지 않는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Kenstowicz(1996)에서는 ‘일관성 지표’(Uniform Exponence)라는 제약을 제안하였다.

(10) 일관성 지표(Uniform Exponence, Kenstowicz, 1996:382)

어휘 항목의 실현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라. (형태소, 어간, 접사, 단어)

일관성 지표는 여기 동일성과 마찬가지로 출력형들의 일치를 부과함으로써 패러다임의 평준화(paradigm leveling)를 유발하는 제약이다. 출력형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어기가 없으므로 패러다임의 구성원들을 함께 평가한다. 제약의 대상이 되는 접두사들이 입력형과 상관없이 패러다임 내에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다면 일관성 지표를 준수하게 된다. 일관성 지표에 의한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1) ‘덧옷’과 ‘덧버선’의 출력부-출력부 대응



합성어와 접두파생어의 음절화 과정은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에 의해 동일한 양상을 띤다. 여기 통일성과 일관성 지표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출력부-출력부 대응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일관성 지표의 효과는 여기 통일성과 마찬가지로 ‘유표성 ≫ 패러다임 통일성 ≫ 충실성’의 위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12) 유표성 ≫ 패러다임 통일성 ≫ 충실성⁶⁾

/덜-/+/웃/ /덜-/+/버선/	음절말 조건	일관성 지표	입출력부 동일성
가. 더술-덜빠선		*!(덜-덜)	*(더술) *(덜빠선)
나. 더술-덜빠선	*!(덜빠선)	√(덜-덜)	*(더술)
다. 더돌-덜빠선		√(덜-덜)	** (더돌) *(덜빠선)

첫째 후보 [더술]-[덜빠선]은 두 단어가 모두 음절말 조건을 준수하지만 접두사 ‘덜’이 [덜-]과 [덜-]으로 다르게 실현되었기 때문에 일관성 지표를 위반한다. 반면 둘째 후보 [더술]-[덜버선]은 일관성 지표를 준수하지만 [덜빠선]이 상위 제약인 음절말 조건을 위반하므로 일관성 지표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형이 될 수 없다. 셋째 후보 [더돌]-[덜빠선]은 두 단어의 출력형이 모두 입력형에 충실하지 못하지만 접두사의 출력형이 [덜-]으로 통일되었고 음절말 조건을 준수하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결론적으로 일관성 지표를 위계에 도입함으로써 단계적 도출과정 없이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서 관찰되는 순환성과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관성 지표의 적용은 몇 가지 문제를 안

6) 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버선/이 /빠선/으로 경음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입출력부 동일성의 위배표시를 부여하지 않았다.

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접두사의 형태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출력부-출력부 충실성에 의한 분석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앞서 지적하였듯이 ‘덜-’, ‘홀-’과 같은 접두사의 표기를 입력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둘째 한국어에서 ‘어휘적 범주’(lexical category)로 보기 힘든 접두사가 과연 패러다임 통일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하지 않다. 셋째 ‘유표성 ≫ 패러다임 통일성 ≫ 충실성’의 위계에 따라 어기 동일성을 체언의 곡용형(옷+이)에, 일관성 지표를 용언의 활용형(높+이)에 각각 적용하게 되면 적형인 [오시]와 [노피] 대신 비적형인 *[오디]와 *[노비]가 선택된다. 따라서 패러다임 통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추적 제약이 곡용과 활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야 한다.

4. 접두사의 입력형과 범주

접두사들은 단독형으로 실현되거나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므로 표기만으로 입력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음절말에서 불파음화를 겪는 /ㅅ/과 /ㅈ/, 유기음을 말음으로 갖는 접두사 ‘갓-, 덜-, 맞-, 홀-’ 등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력형을 /갓-/ , /덜-/ , /맞-/ , /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접두사의 발생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휘적 범주로부터 비롯되므로 접두사화를 겪는 몇몇 단어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 어휘적 범주의 자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파생어 ‘맞-았다, 홀-옷, 걸-어림’에서 접두사인 ‘맞-, 홀-, 걸-’은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가 동사의 어간과 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용형과 곡용형을 통해 입력형이 /맞-/ , /홀-/ , /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접두사화를 거치면서 실사가 가진 본래의 의미도 변화되지만 그러한 변화는 양자 사이의 어원적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므로, 접두사화되었지만 본래의 어간 및 명사와 동일한 입력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동사 ‘맞다’로부터 접두사 ‘맞-’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지양(1998:104-107)에서는 접두사 ‘맞-’의 형성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맞보다’, ‘맞들다’ 등이 ‘빌먹다’, ‘감싸다’와 마찬가지로 어간이 직접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V_{stem}+V_{stem}]-V)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맞다’에서 파생된 부사 ‘마주’와 동사로 이루어진 동사구 구성([Adv+V]_{VP}) ‘마주 보다, 마주 들다’ 등에서 ‘마주’가 ‘맞-’으로 융합되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중 어떠한 과정을 가정하더라도 접두사의 입력형을 /맞-/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접두사 ‘맞-’이 부사 ‘마주’로부터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사 역시 어간 ‘맞-’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어간 ‘맞-’과 접두사 ‘맞-’의 관계는 단단하다.⁷⁾

이제 접두사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어의 접두사는 조사와 어미, 접미사와 더불어 비어휘적 범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어에서 대부분의 조사와 어미는 물론 몇몇 접미사에서도 어근과 어간에 따라 형태음소적 교체가 일어나지만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교체를 겪지 않으므로 비어휘적 범주들 중에서도 특이한 존재라 할 수 있다.⁸⁾ (13)

7) 참고로 이지양(1998)에서는 파생부사 ‘마주’의 융합으로부터 접두사 ‘맞-’이 형성되었다는 후자의 논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접두사 ‘맞-’이 가지고 있는 “대응, 대항”의 의미가 동사인 ‘맞다’보다는 “양쪽에서 서로 보고”라는 부사 ‘마주’의 의미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접두사의 특성 때문에 용언에 붙는 접두사는 ‘부사성 접두사’로, 명사에 붙는 접두사는 ‘관형사성 접두사’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접두사 ‘맞-’이 동사 ‘맞다’보다 부사 ‘마주’와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접두사 ‘맞-’이 ‘맞다’로부터 직접 접사화되었다 가정하더라도 ‘맞-’은 부사성 접두사이므로 그 의미는 파생부사 ‘마주’와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은 비어휘적 범주인 조사, 어미, 접미사가 선행 체언, 어간, 어근에 따라 교체되는 예들이다. 일부 조사나 어미의 교체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데 대개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조건을 따르며 몇몇 불규칙적 교체는 어휘 개별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한국어의 조사, 어미, 접미사에는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3) 비어휘적 범주의 형태음소적 교체

가. 조사 : -이/가, -은/는, -을/를, -아/야, -과/와

나. 어미 : -으시/시-, -은/ㄴ-, -습/ㅁ-, -으려고/려고, -으며/며, -으나/나

다. 접미사 : -음/ㅁ, -압/엍-, -양/영-

운율음운론에서도 접두사의 음절화를 설명하기 위해 접두사를 기본적으로 비어휘적 범주로 보면서도 어휘적 범주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다. 운율적 분석에 의하면 접두파생어의 음절화는 형태구조와 운율구조의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4) 접두파생어의 음절화(강옥미 1993:18)

가. 형태구조

나. 음운구조

① 접두사화 [뎃N[옷]]

② 삼투 N[뎃N[옷]]

③ 괄호소거 N[뎃옷]

④ 도출형

① 운율어 형성(어휘부)

② 음절화, 음절말 불파음화

③ 재음절화

ω(뎃)ω(옷)

ω(뎃)ω(을)

| |
σ σ

Φ(더돈)

접두사의 음절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14가) ‘② 삼투’이다. ‘삼투’(percolation)이란 어휘부에서 범주의 표시가 없는 마디

8) 예외적인 일부 접두사는 후행 어근의 종류에 따라 교체된다. ‘마구, 몹시, 심하게’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들-/은 ‘볶다, 끓다, 쑺시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들볶다, 들끓다, 들쑺시다’로 나타나지만 ‘날리다, 넓다, 높다, 세다, 솟다’와 결합할 때는 ‘드날리다,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 드솟다’로 실현된다.

(node)가 하위의 마디로부터 범주자질을 받는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상위 마디의 범주는 하위 마디의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 ‘덧옷’의 경우 접두파생어 내부에 있는 ‘옷’의 어휘적 범주(N[])가 ‘덧옷’ 전체로 삼투된다.

(14나)에 적용된 강옥미(1993)의 운율어 형성규칙은 ‘측단이론’(End Based Theory, Selkirk, 1986)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어휘범주의 ‘왼쪽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15) 한국어의 운율어 형성규칙(강옥미, 1993:16)
 $\text{lex}_0[\rightarrow \omega \text{ (lex : 어휘적 범주, N, V, Adj, Adv)}$

그 결과 운율어의 자격을 가진 /덧-/과 /옷/이 독자적인 음절화의 영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접미사와 접두사는 비어휘적 범주이지만 접두사는 어휘적 범주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미사와 달리 운율적으로는 어휘적 범주와 동일한 자격을 얻는다.

접두사 자체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왼쪽 가장자리’라는 매개변인(parameter)과 자질의 삼투에 의해 접두사가 어휘적 범주로 처리된다는 운율음운론의 분석은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만약 접두사가 독자적인 음절화의 영역을 형성하는 원인을 접두사 자체의 어휘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면 매개변인이나 운율어 형성규칙에 의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접두사가 어휘적 범주라면 형태적으로 합성어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므로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패러다임 통일성 제약을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문법적 기능을 갖지 않고 어휘적 기능만을 갖는다.⁹⁾ 접두사는 어휘적 범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변

9) 유현경(2000:195-197)에서는 문법적 기능을 가진 접두사로서 ‘매(每)-, 대(對)-, 부(不)-, 불(不)-, 비(非)-, 미(未)-, 귀(貴)-, 폐(弊)-, 속(續), 엇-, 맞-’을 소개하고

하거나 축소되지만 대체로 어휘적 범주와 유사한 기능과 의미를 유지한다. 따라서 관형사·부사와 접두사의 혼동을 다룬 논의(유현경, 2000; 신중진, 2000)와 접두사의 설정기준과 목록의 차이를 다룬 논의(이양혜, 2002a; 박형우, 2004)는 물론 접두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 논의(이관규, 1989)들은 모두 접두사가 어휘적 범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들과 마찬가지로 어휘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접두사의 어휘적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접두사의 음운론적 특성인 독립적인 음절화에 대한 근거, 즉 패러다임 통일성을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접두사가 어휘적 범주인 합성어의 어근이나 관형사·부사와 혼동된다는 사실은 적어도 접두사의 어휘적 성격이 매우 강하며 단독형 어기를 갖지 못하지만 패러다임 통일성 제약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주임을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접두사는 어떠한 어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접두파생어는 단어로서의 기능과 의미가 합성어와 매우 유사하다. (16가-나)는 각각 접두파생어와 합성어들이며, (17)에서 ‘들취’와 ‘눅되다’는 접두파생어인 반면 ‘산토끼’와 ‘검붉다’ 합성어이다.

- (16) 가. 접두파생어 : 헛-나물, 홀-옷, 알-밤, 찰-떡, 푹-김치
나. 합 성 어 : 산-나물, 비-옷, 군-밤, 콩-떡, 파-김치

- (17) 접두파생어와 합성어
가. 들-취 : 산-토끼
나. 눅-되다 : 검-붉다

있다. 이관규(2002:175)에서도 ‘메마르다, 강마르다, 숫되다, 엷되다’의 접두사 ‘메-, 강-, 숫-, 엷-’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기능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근에 결합하여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으로서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한정적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정의되지만 (16-17)과 같이 합성어의 선행어근 역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박형우, 2004:405). 따라서 접두사의 형태적 기준, 즉 ‘홀로 쓰이거나 문장성분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비자립성을 제외한다면 위에 제시된 접두사들은 기능적으로 합성어의 선행어근과 큰 차이가 없다.

접두파생어와 합성어가 유사한 까닭은 구성성분인 접두사와 어근이 어휘적 범주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몇몇 용언어간과 접두사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8) 가. 들다 : 드날리다, 드높다, 드다르다, 드던지다
 나. 휘다 : 휘늘어지다, 휘더듬다, 휘돌다
 다. 몰다 : 몰밀다, 몰박다, 몰매, 몰표
 라. 늦다 : 늦되다, 늦심다, 늦익다, 늦자라다, 늦치르다, 늦과일, 늦김치, 늦더위, 늦벼, 늦봄, 늦잠, 늦장가, 늦추위
 마. 설다 : 설곤다, 설굽다. 설깨다, 설데치다, 설마르다, 설미지근하다, 설삶다, 설익다, 설자다, 설차다

(18)은 이선영(2003:160-164)에 제시된 예들인데, 접두사 ‘드-, 휘-, 몰-, 늦-, 설-’과 용언의 어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의미상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¹⁰⁾ (18가-나)와 달리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와 ‘휘날리다, 휘넓다, 휘둥그렇다’ 등의 접두파생어에서 ‘드-’와 ‘휘-’는 후행어근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들다’[擧]나 ‘휘다’[攪]와 의미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이선영, 2003:161-162). 하지만 ‘드-’와 ‘휘-’는 ‘들다, 휘다’의 의미와 ‘아주 ...하다’ 정도의 강조적 의미를 갖는 일종의

10) 이선영(2003)에서는 (18)의 ‘드-, 휘-, 몰-, 늦-, 설-’에 용언어간의 어휘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18)의 단어들을 접두파생어가 아니라 용언어간이 결합한 복합어로 보고 있다.

다의적 접사이므로 접두사가 ‘들다, 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드날리다, 휘돌다’와 강조적 의미로 해석되는 ‘드넓다, 휘날리다’는 동일한 접두사로 구성된 단어들이나 셈이다.

반면 (18다-마)의 ‘몰-, 늦-, 설-’이 결합된 접두파생어들 중에서는 ‘드넓다’나 ‘휘날리다’처럼 용언어간 ‘몰다, 늦다, 설다’와 의미적 관련성이 희박한 단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18)의 단어들은 접두사와 용언어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접두사들 가운데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접두사와 용언어간의 관련성은 접두사의 어휘적 특성을 암시한다.

어휘적 범주와 접두사의 관련성은 때로는 접두사로 때로는 체언으로 분석되는 몇몇 형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가 접두사와 체언으로 사용되는 접두파생어들이다.

- (19) 가. 걸 : 걸눴다, 걸돌다, 걸멧, 걸보리, 걸어림, 걸짐작, 걸치레, 걸
활다
나. 들 : 들개, 들깨, 들기름, 들소, 들쥐, 들국화, 들장미
다. 홀 : 홀바지, 홀웃, 홀이불, 홀몸
라. 바깥 : 밭다리, 밭사돈, 밭주인, 밭쪽

(19)의 ‘걸, 들, 홀, 바깥’은 대부분의 사전에 명사와 접두사로 함께 올라 있으므로, 이들이 선행요소로 참여한 단어들을 형태상으로는 합성어나 파생어로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19라)의 명사 ‘바깥’은 접두사로 실현될 경우에 ‘밭-’으로 축약된다. (19)의 단어들에서는 의미상으로도 명사와 접두사의 뚜렷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요컨대 접두사는 자립성이 약하지만 용언어간이나 합성명사의 선행어근과 형

11) 김창섭(1998:7-8)에서는 ‘들깨’와 ‘들기름’에서 접두사 ‘들-’의 의미를 명사 ‘들’[野]과 비교적 거리가 먼 ‘참 것이 아닌’으로 보고 있으나 ‘들깨’와 ‘들기름’의 의미도 ‘들’[野]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 ·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휘적 성격이 강한 준어휘적 범주로 볼 수 있다.

둘째 접두사의 기능은 어휘적 범주인 관형사 · 부사와 비슷하며 그 유형을 관형사성 접두사와 부사성 접두사로 나눌 수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형사성 접두사는 명사에, 부사성 접두사는 용언에 결합되며 이들을 관형사와 부사로부터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현경(2000)에서는 부사와 접두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예로서 ‘갓’과 ‘곧추’를 들었으며, 관형사와 접두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새, 옛, 못, 이듬, 첫, 허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관형사와 부사로 분류되는 접두사의 기능적 유형은 접두사가 어휘적 범주와 동등한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형사 · 부사와 접두사의 유사성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관형사와 부사는 곡용이나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두사와 같이 형태음소적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품사라는 점이다. 일관성 지표의 효과는 교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일관성 지표의 적용을 받는 접두사가 교체와 무관한 관형사 · 부사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양 범주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추측된다.

셋째, 접두파생어는 접미파생어와 달리 통시적으로 파생어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단일어로 바뀌는 변화, 즉 ‘어휘적 재구조화’를 잘 겪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접미사에 비하여 접두사의 어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휘적 재구조화’란 주로 파생어가 단일어 혹은 단일어와 유사한 수준까지 변화되어 공시적인 단어형성 규칙으로 생성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송철의(1992)에서는 파생어의 이러한 변화를 ‘語彙化’로 정의하였는데 다음은 그 개념을 요약한 것이다.

(20) 파생어의 어휘화(송철의, 1992:31-32, 요약 및 밑줄 필자)

파생어 형성규칙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는 독자적인 단어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어기와 상관없이 통시적으로 독자적인 변화를 겪거나 어기가 겪은 변화를 거부할 수 있다. 어기와 파생어가 각기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으면 어근과 파생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공시적인 파생어 형성규칙으로는 생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어휘화라 한다. 따라서 어휘화란 어기와 파생어와의 파생관계가 규칙적으로 예측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송철의(1992:31-56)에서는 파생어의 어휘적 재구조화를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어휘화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접미파생어의 형태론적 어휘화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접미파생어의 어휘화란 접미사가 공시적인 생산력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21) 접미파생어의 형태론적 어휘화(송철의 1992:42)

- 가. -압/엄 : 무덤, 주검, 마감
- 나. -웅 : 지붕, 마중, 기둥
- 다. -앙이 : 지팡이
- 라. -가미 : 올가미
- 마. -오/우 : 도로, 너무, 자주, 바로
- 바. -아리/어리 : 귀머거리, 이파리
- 사. -(으)머리 : 꼬트머리
- 아. -악/억 : 터럭, 무르팍

위의 단어들은 파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관련된 파생어 형성규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시적으로는 단언어로 처리된다.

위의 단어들이 형태적 어휘화를 겪는다는 사실은 의미론적 투명성과 표기법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21)의 ‘무덤, 주검, 마감, 마중, 도로, 너무’는 각각 그 어기인 ‘묻-, 죽-, 막-, 맞-, 돌-, 넘-’과 의미적 관련성이 투명하지 않다(송철의, 1992:42). 표기에 있어서도 위의

단어들은 일반적인 접미파생어와 다르다. ‘한글맞춤법’에 의하면 파생어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형태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1)과 같이 어휘화된 파생어들에 대해서는 음소표기가 허용된다. 음소표기는 통시적으로 어휘화를 겪으면서 단일어로 재구조화된 파생어들을 공시적 파생어들과 구분하기 위한 표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접미파생어와 달리 접두파생어가 어휘적 재구조화에 이르는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접두사는 어휘적 범주로부터 형성되면서 이미 1차적 변화를 겪었지만 (18-19)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적 범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접두파생어는 단일어로 어휘화되는 경우가 드물고, 접미파생어의 어휘화에서 관찰되는 의미론적 불투명성이나 음소표기를 접두파생어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¹²⁾

접미파생어들 중에서도 어휘화를 겪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으므로 어휘화를 기준으로 접미사와 접두사의 어휘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접미파생어만이 어휘화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파생어의 어휘화에는 접두사와 접미사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접두사는 적어도 어휘화를 겪는 접미파생어의 접미사들보다는 어휘적 범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접두파생어에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난다면 접두사와 어근을 구별하는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단일어로 바뀔 것이므로 우리는 동일한 접두사로 구성되는 패러다임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어휘적 재구조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접두사를 축으로 구성되는 패러다임은 굳건히 유지된다.

12) 동사 ‘들다’가 ‘드-’로 접두사화되면서 일어난 ‘크탈락’은 공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18가)에서는 음소표기를 하였다.

(22) 접두사 ‘늦-’에 의한 파생어들의 패러다임

가. 늦-+동사 : 늦-되다, 늦-심다, 늦-익다, 늦-자라다, 늦-치르다

나. 늦-+명사 : 늦-과일, 늦-김치, 늦-더위, 늦-벼, 늦-봄, 늦-잠, 늦-장가

이러한 패러다임이 ‘일관성 지표’와 같은 유추적 제약이 적용되는 환경을 조성하므로 접두사의 어휘적 성격은 패러다임 통일성의 바탕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접두사의 입력형과 어휘적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용언 어간이나 명사로부터 접두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접두사의 입력형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접두사의 어휘적 성격을 보여주는 세 가지 특성을 논의하였다. 요컨대 접두사의 입력형과 어휘적 성격은 접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접두사가 일관성 지표와 같은 패러다임 통일성 제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패러다임 통일성의 적용범위

본 장에서는 출력부-출력부 대응에 의한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가 곡용과 활용에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과 평준화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관찰되는 유추적 평준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관점을 소개하고 검토하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규범적인 발음과 다르지만 체언의 곡용에서는 여기 동일성의 효과가 관찰된다. 표준발음법에 의하면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군은 단독형 이거나 자음이 후행할 때 하나의 분절음을 탈락시키고, 곡용이나 활용시 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는 연음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모

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도 분절음이 탈락되어 단독형과 동일한 어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독형이 가능한 체언에서만 관찰된다.

(23) /값/	값	[갑]	/없-/	_____
	값이	[가비]	없었어	[업써써]
	값과	[갑파]	없다	[업따]
/닭/	닭	[닥]	/밖-/	_____
	닭이	[다기]	밖았어	[발가써]
	닭과	[다파]	밖다	[박따]

이와 같은 체언과 용언의 비대칭성을 Kenstowicz(1996:370)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어기 동일성의 효과로 분석하였다. 어기 동일성의 효과는 음절말 자음군뿐만 아니라 체언말의 비설정 유기폐쇄음에서도 관찰된다.

(24) /동녘/+/-으로/	‘동녘+으로’	[동녀그로]
/부엌/+/-은/	‘부엌+은’	[부어근]
/무릎/+/-이/	‘무릎+이’	[무르비]

체언과 달리 용언의 활용에서는 어기 동일성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어간이 규칙적으로 교체되지 않는 불규칙용언의 활용에서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가 관찰된다. 다음은 어미의 종류에 따라 /X 르-/와 /X 르 르-/의 불규칙적 교체가 일어나는 ‘르불규칙’ 용언의 어간이 /X 르 르-/로 단일화된 예이다(박선우, 2002:25).

- (25) 가. 공이 그라운드 한복판을 갈르며(←가르며) 날아갔다
 나. 춤추한 필터로 걸르다(←거르다) 보면, 통과할 것이 없다
 다. 로빈은 데굴데굴 굴르며(←구르며) 웃기 시작했어요

- 라. 도인들은 한복을 입으며 머리를 길르고(←기르고) 예절과 정신을 갈고 닦는다
 마. 별르고(←벼르고) 별러 청학동을 찾아간 사람들은 실망을 안고 돌아선다
 바. 한국의 미를 손상시키지나 않을지 몰르겠다(←모르겠다)

이전까지 유추적 평준화로 설명되어온 어간의 단일화를 제약기반 이론에서는 ‘일관성 지표’로 분석할 수 있다.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예들은 물론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규범적 발음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제약기반 이론이 제공하는 원론적인 방법, 즉 위계를 변경하거나 출력부 대응제약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6) 가. 부엌-에서 [부어게서]

/부엌+에서/ 어기 : [부엌]	어기 동일성	입출력부 동일성
a. 부어게서	*!	
☞ b. 부어게서		*

나. 부엌-에서 [부어게서]

/부엌+에서/ 어기 : [부엌]	어기 동일성 (합성, 접두파생)	입출력부 동일성
☞ a. 부어게서		
b. 부어게서		*!

다. 부엌-에서 [부어게서]

/부엌+에서/ 어기 : [부엌]	입출력부 동일성	어기 동일성
☞ a. 부어게서		*!
b. 부어게서	*	

(26가)와 (26나) 사이에서는 어기 동일성의 적용영역에 따라 다른 적형이 선택된다. (26가)에서는 유추적 평준화의 영향력이 곡용형까지 확대되어 [부억-]이 적형으로 선택되지만, (26나)에서는 어기 동일성의 적용범위가 합성어와 접두파생어에 제한되어 곡용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입력형에 충실한 [부억-]이 적형으로 선택된다. 반면 (26가)와 (26다) 사이에서는 어기 동일성과 입출력부 동일성의 위계에 따라 다른 적형이 선택된다. 하지만 (26다)의 제약위계는 합성어와 접두파생어를 분석하기 위한 (9), (12)의 제약위계와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26가-나)와 같이 제약의 적용범위를 변경함으로써 두 가지 출력형을 모두 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분석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기본적으로 적형의 변동이 수의적(optional) 현상인지 변이(variation)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같은 단어라도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선호되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혜원(2004)에서 서울·경기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채언 ‘옆’과 ‘짚’의 선호 발음을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27) ‘옆’과 ‘짚’의 /ㅍ/ 발음(최혜원, 2004:92-95, 단위 %)

옆	[옆-]	[엽-]	짚	[짚-]	[집-]
옆-이	92.35	7.15	벧짚-이	33.4	65.8
옆-에서	94.3	5.35	벧짚-에서	34.35	64.85
옆-으로	93.9	5.8	짚-으로	69.35	30.3
옆-의	92.75	5.45	벧짚-의	37.85	60.1
옆-아	79.15	18.85	짚-아	41.9	56

위의 도표에서 ‘옆’은 /ㅅ/의 음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짚’은 어기 동일성의 효과에 의해 단독형과 동일한 어형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짚’은 결합되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결과를 단일한 제약위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어기 동일성이나 일관성 지표가 근본적으로 유추적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추와 밀접한 ‘빈도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¹³⁾ 결국 [옆-], [짚-]에 대해서는 (26나)처럼 어기 동일성의 적용영역을 제한하되 [옆-], [집-]과 같이 유추적 평준화를 겪은 어형들에 대해서는 어휘개별적 특성과 빈도정보에 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규칙의 단계적 적용에 의해 도출되는 과정으로 여겨졌던 접두파생어의 음절화가 출력부-출력부 대응에 의한 ‘패러다임 통일성’의 결과이며, 최적성이론의 2단계 층위(입력부-출력부) 모델과 배치되지 않는 현상임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음절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투명성, 즉 합성어와 접두파생어에서 과도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음절말 불파음화는 순환적 도출과정의 결과로 인식되어 왔지만 Kenstowicz(1996)에서 제안된 ‘어기 동일성’과 ‘일관성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순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어기 동일성은 어기가 항상 독립된 어휘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규칙중심의 순환이론과 구별된다. 반면 일관성 지표는 입력형이나 단독형 어기와 상관없이 패러다임 전체를 동시에 평

13) 체언말 자음의 변화와 빈도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재혁(2006)과 박선우(2006a)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제약을 통한 분석은 패러다임 통일성에 대한 중요한 일반화를 보여준다. 합성어나 접두파생어, 혹은 체언의 곡용에서 패러다임 통일성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제약위계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다.

- (28) 합성어·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 대한 제약위계의 일반화
 가. 음절말 조건 ≫ 여기 동일성 / 일관성 지표 ≫ 입출력부 동일성
 나. 유표성 ≫ 패러다임 통일성 ≫ 충실성
 다. 출력부 유표성 ≫ 출력부-출력부 대응 ≫ 입력부-출력부 대응

만약 패러다임 통일성이 입력부-출력부 충실성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제약위계에서 여기 동일성이나 일관성 지표는 최적형의 선택에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므로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의 접두사는 자립성이 약하다는 비어휘적 범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어휘적 범주의 성격이 강하다. 어휘적 범주와 마찬가지로 형태음소적 교체를 거의 겪지 않으며 관형사·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접두사는 일관성 지표와 같은 패러다임 통일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옥미. 1993. “운율어 내에서 일어나는 한국어 음운현상.” 『어문논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3. 11-22.
 강옥미. 1994. “한국어의 ㄹ-비음화, ㄴ-탈락과 ㄴ-설측음화에 대한 운율론적 해석.” 『언어』(한국언어학회) 19-1. 1-26.
 김창섭. 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5-22.
 박선우. 2002. “현대국어 르불규칙 활용에 대한 고찰.” 『한말연구』 10. 23-41.

- 박선우. 2004. “국어의 음절화와 패러다임 통일성.” 『한국어학』 22. 131-51.
- 박선우. 2006a. 「국어의 유추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박선우. 2006b. “한국어 체언말 마찰음화의 유추적 분석.”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한국음운론학회) 12.1. 77-103.
- 박형우. 2004. “고유어 접두사 설정의 기준.” 『청람어문교육』 28. 391-419.
- 배주채. 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181-204.
- 신중진. 2000. “접두사와 관형사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 접두사의 기능 확장을 피하며.” 『국어학 논집』 4. 역락출판사. 49-69.
- 유현경. 2000.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연구』(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9. 183-203.
- 안상철. 2001/2003.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한국문화사.
- 오재혁. 2006. 「체언말 자음의 교체 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관규. 1989. “국어 접두사 재고: 그 존재에 대한 부정적 견해.” 『어문논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8. 339-50.
- 이관규. 1999/2002. 『학교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이봉원. 2002. 「현대국어 음성 · 음운 현상에 대한 사용기반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3. “용어 어간의 어휘형성론적 고찰.” 『국어학』 41. 145-67.
- 이양혜. 2002a. “한국어 파생명사의 재분류와 목록화: 명사 파생 접두사 설정을 위해.” 『한글』 255. 47-97.
- 이양혜. 2002b. 「한국어 파생명사 사전」 국학자료원.
- 이지양. 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전상범. 2004. 『음운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전승. 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 최혜원.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I』. 국립국어연구원.
- Kager, René. 1999. *Optimality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stowicz, Michael. 1996. Base-identity and uniform exponence: alternatives to cyclicity. In J. Durand and B. Laks (eds.), *Current trends in phonology: models and methods*. CNRS, Paris X, and University of Salford. University of Salford Publications. 363-93.

- Kenstowicz, Michael. 1997. Uniform Exponence: Exemplification and Extensio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3. The Phonology- Morphology Circle of Korea. 1-23.
- Kirchner, Robert. 1996. Synchronic chain shifts in Optimality Theory. *Linguistic Inquiry* 27. 341-50.
- Kiparsky, Paul. 1971. Historical linguistics.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ed. by W. Dingwall, 576-642.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Linguistics Program.
- McCarthy, John J. 2002. *A Thematic Guide to Optimality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영석 · 김진형 역 『최적성이론의 주제별 안내』 2003. 한국문화사)
- McCarthy, John J. 2002. Comparative Markedness.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ROA-489]
- McCarthy, John J. 2005. Optimal paradigms. *Paradigms in Phonological Theory*, ed. by Laura J. Downing, T. A. Hall and Renate Raffelsiefen, 170-210. Oxford University Press.
- Rubach, Jerzy. 2000. Glide and glottal stop insertion in Slavic languages: A DOT analysis. *Linguistic Inquiry* 31, 271-317.
- Selkirk, Elisabeth O. 1986. On derived domains in sentence. *Phonology* 3, 371-405.
- Steriade, Donca. 1996. Paradigm uniformity and phonetics-phonology boundary. *Laboratory Phonology* 5. 313-34.

박선우(Park, Sunwoo)

고려대 국어교육과, 세종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135-012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04-29 아름빌라 301호

전화 : (02) 517-7867

전자우편 : sunwoopark@korea.ac.kr

원고접수일 : 2006. 6. 29.

게재결정일 : 2006. 8. 2.